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나사로의 죽음

(요 11:11-15)

이종윤 원로목사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어서 일생을 두고 개인에게 꼭 찾아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과 하나님 없이 죽는 죽음입니다.

1. 죽음의 종류

(1) 불신자의 죽음

불신자가 죽는 시간은 바로 형벌이 시작되는 무서운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고 빛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곳은 빛이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죽음은 고통의 시작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둡고 메마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기 때문에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단순한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선물을 박탈당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2) 신자의 죽음

신자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복되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눅 16:22, 23:43).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시간은 본인을 위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도 섭섭하다고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섭섭한 감정의 표현이지 망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초상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섭섭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편안하게 아버지의 집,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요 14:2).

2.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신 예수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요 11:15 상)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요 11:11).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요 11:15). 예수님께서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신 것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첫째,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터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으므로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잠들었다'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들었다'의 말 속에는 많은 유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고 일할 힘이 더 생기듯 나사로의 죽음 뒤에는 유익한 일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와 죽음은 손해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5-56). 신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죽음을 '사망아' 하고 담대히 불렀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화살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쏘는 화살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잠정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을 받은 일이 되는 것이니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둘째,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을 알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11). 죽음은 예수님께서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1:25, 14:6).

셋째, 나사로의 죽음은 믿음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 사명자대회 은혜롭게 진행 중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 사명자대회를 시작하였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읽기표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유키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상기하도록 하자.

교구별 친교 모임

모든 교구는 10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각 교구별 친교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의 의미는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교회 전체적인 친교 모임을 가질 수 없었고 각교구가 통합하여 일체감을 이루기가 어려

웠으며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자를 위해 많은 수고를 위로하자는 의미가 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회 회복을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날짜	교구	장소
10월 10일(월)	8교구	CGV 피카디리
10월 15일(토)	4교구	올림픽 공원
	5교구	올림픽 공원
	7교구	세계성막복음센터
10월 20일(목)	9교구	베델하우스
10월 21일(금)	3교구	뮤지엄 그라운드
10월 29일(토)	1교구	양재천 걷기대회
11월 4일(금)	2교구	교회 802호
11월 5일(토)	6교구	한국 기독교 순교자기념관



지난 10일(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불구하고 8교구 성도들이 종로3가에서 모여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장하람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2022 사명자대회

나를 보내소서!



채교천 집사
(사명자대회
안내분과)

어느 TV 프로에서 탈북자가 불쑥 출연자들과 사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겪어본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컸나요?"

"... .."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배고픈 겁니다!"

"때 맞는 것, 욕 먹는 것, 잡 못자는 것, 아니요. 배고픈 겁니다. 추운 겨울날 압록강변 장마당에서 쪼쪼 언 얼음 속에 버려진 강냉이 몇 개 먹겠다고 동상 걸린 손으로 그걸 깨며 먹다가 보안원의 무자비한 몽둥이질과 발길 질에도 입으로 그 몇 알을 먹었습니다. 욕, 매질, 추위, 창피 그런건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출연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껴꺼이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이어서 그 탈북자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돌로 빵이 되게 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북을 도와주신 선교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눈물 마른 나를 원 없이 울게 하신 그분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 호소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곳이 어디이든 그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 그 곳은 세상이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와 떡을 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웃을 찾아 성령님과 함께 "나를 보내소서!" 외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명자대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가시지요!

목마르고 배고픈 세상을 향해!

2022. 10. 16. (주일) 오전 11시 40분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Kaleidoscope Music Society **칼뮤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회, 주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 대치동어울림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

대치동 어린이를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 우리 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십니다!



임우택 집사
(금요기도회
부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7-8)

우리에게 어려움이 밀려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줄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워 눈물만 나는 염려들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해결책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0년 가을 '원인 모를 고열과 패혈증'으로 강남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통보받은 아내는 제가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속에 교회와 시댁과 친정 형제자매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

과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매달렸고 믿음의 성도들의 합심기도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는 현대 의학의 판결 속에도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의 치유자 권능의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할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의 합심이고 성도의 산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기도에 갈급한 성도님, 소리 높여 맘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 금요기도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금요기도회에 동참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우리가 모인 금요기도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울교회 부흥과 국가와 가정과 개인에게 산적해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금요기도회 속에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울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 권사회 수련회

하나님 우리가 서울교회 권사입니다



해마다 2월에 열렸던 권사회 수련회가 수년간 열리지 못하였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0월이 되어야 열리게 되었다.

지난 10월 8일(토)에 열린 권사회(회장 : 박미혜 권사) 수련회에서 손달익 담임목사님은 시편 8편 4-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울교회 권사입니다"라는 제하의 특강을 하며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의 덕목은 포용과 희생과 성실성이다"라고 했다.

"권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의 리더십은 영성에서 출발한다. 영성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앙 속에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나온다. 은혜가 메마른 교리주의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모든 권사는 자신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 직분자는 많은데 섬김의 현장에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는 불행한 교회이다.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권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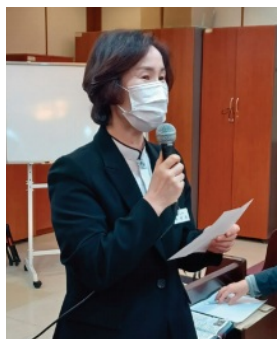
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사회 수련회는 특강 후 박미라 전도사가 인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8층 만나홀에서 권사회 임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비빔밥을 먹고 오랫동안 부서별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리브가전도회 성경암송대회

리브가전도회(회장 : 서희숙 권사)는 지난 주일 10월 월례회를 진행하며 교회의 성경암송대회 범위인 잠언 1-8장의 범위를 18명이 릴레이로 암송하며 자체적인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이 날 심사위원장으로 박미라 전도사가 수고해 주셨다.





지난 10월 11일(화), 사라전도회는 베델하우스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이날 손달익 담임목사는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란 제하의 설교를 하셨으며 예배 후 손달익 목사의 생신축하와 사명자대회 기도시간을 가진 후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와 큰 힘이 되어주신 사라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17일	월	눅 1		사 50-59	
10월18일	화	눅 2-3		사 60-66	
10월19일	수	눅 4-6		렘 1-9	
10월20일	목	눅 7:1-8:21		렘 10-15	
10월21일	금	눅 8:22-9:62		렘 16-23	
10월22일	토	눅 10-11		렘 24-30	
10월23일	주일	눅 12-13		렘 31-36	

새벽기도회 반주자 변경

새벽기도회 반주자로 그동안 수고하신 김양언 집사의 임신으로 이경화3 집사로 변경한다.

동정



- 독주회 : 4교구 박찬호 성도 (박광서 집사 백경화 권사 장남) 10월 23일(주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 티켓은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랍니다.
- 식사 제공 : 7교구 하상영 집사 공해원 성도 가정 (득녀-자녀 주심을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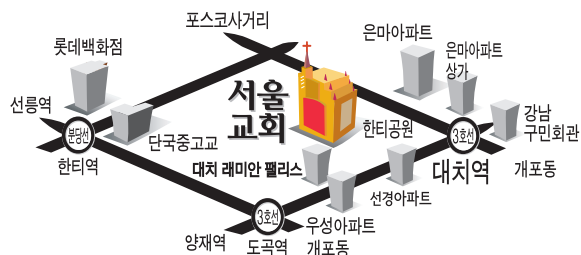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하루하루를 말씀 읽고 시작하고, 정오에는 한마음으로, 자유키도 시간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1인 1사랑의 실천과 전도에 힘 쏟는 사명자대회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